

### 낙농가와 유업체 및 유통업체는 낙농위기를 타개하는데 동참하자



최기수

농수축산신문 차장

○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자명하다. 모든 낙농가와 유업체가 하나도 제외되지 않은 가운데 다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길이다.  
○ 모두가 같이 고통을 분담하면 그 고통은 적지만 그 결과 얻을 수 있는 환희는 크다. 낙농가와 유업체 및 유통업체 종사자는 현재의 낙농위기를 타개하는데 같이 동참하는 길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

우리 낙농업이 직면한 현실은 우리 경제와 너무나도 비슷하다. 그리고 앞날도 우리경제가 언제쯤 IMF관리체제에서 벗어날지를 예측하기 만큼이나 불투명하다.

우리 경제는 지금 구조조정의 도마위에 올려져 있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피할 길도 없다. 그렇다고 어느 한부문이라도 구조조정이 제대로 된 곳도 없다.

지난해 12월 외환이 바닥나면서 IMF관리체제에 들어간 당시의 상황에 비하면 경제사정이 나아진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게 우리 경제의 현실이다.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은행이 문을 닫고, 대기업 계열사도 문을 닫는 등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희생이 뒤따르고

있다. 노동자는 직장에서 길거리로 내몰리고, 국민은 이들 부실은행과 부실기업의 회생을 위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특히 이같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더욱 나빠지고 있고, 오늘 내일 사이에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없다. 우리 경제의 견인차인 수출은 뒷걸음질을 하고 있다.

낙농업도 마찬가지이다. IMF관리체제를 맞아 유유등 축산물 소비가 급감하면서 유가공조합과 유가공업체는 산더미 처럼 체화된 분유로 골치를 앓고 있다.

낙농가들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이다. 생산감축이라는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원유의 공급과잉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8월말

까지 2만1천여두의 저능력 젖소를 도태했다.

그리고 이같은 구조조정에도 대해 정부는 10만원씩의 도태지원금을 지급했다. 정부는 나아가 1만7천6백여두의 초유때기 젖송아지를 마리당 10만원씩에 수매했다.

그 결과 낙농업은 일단 위기를 벗어난 듯도 하다. 지난해 12월 IMF관리체제에 진입한 이후 급격하게 불어나기만 한 분유재고도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줄어들고 있다. 일단은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난 듯 하다.

그러나 앞날은 어둡다. 오는 12월 이후 비수기에 들어가면 상황은 달라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많다.

살아남기 위해 살을 도려내는 구조조정을 하고, 그 구조조정 의 대가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지원해주고, 그렇지만 앞날은 어둡기만 한게 우리 경제나 낙농업이 직면한 현주소이다.

우리 낙농업의 현실은 지난 8월 31일 축협중앙회에서 열린 '낙농 산업 안정을 위한 제도 추진방향' 공청회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이날 공청회는 우리 낙농업이 사상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점을 실감시켜 주는 자리였다.

당장 정부는 내년부터 생산계약제가 시행될 것이라는 점을 밝혔으며, 현재의 수급상황을 볼 때 생산계약제에서 비껴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여기서 시장경제원리상 모조분유 수입은 당연하다는 유업체 측의 시각도 확인이 됐다.

“우리나라는 원유가 가장 비싼 나라다. 그렇다고 외국보다 나은 품질의 원유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나 갖추고 있다. UR협상서 쌀 시장 개방을 막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됐다. 이론에 치우쳐 현실을 망각해서는 답도 안나온다. 유업체가 모조분유와 유제품을 수입한다고 도덕성 문제를 거론하는데 지금은 도덕성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날 공청회에서 유업체측 대표로 나온 모유업체의 관계자가 이같은 폭탄성 발언을 할 때 축협대강당은 쥐죽은 듯 고요했다. 종전 같은면 곳곳에서 야유가 쏟아져 나왔겠지만 그날은 달랐다. 오히려 위기감만이 공청회장에 가득했다.

분명히 낙농업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낙농진흥법 상의 생산계약제를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쿼터제가 실시됐다. 납유량의 10%를 공제하고 원유값을 지불하는 것은 그 자체가 생산쿼터제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생산쿼터제가 부러운 낙농가도 있다. 몇 달분의 원유값을 받지 못한 낙농가도 있다. 그러다 보니 사료구매도 어렵다고 호소를 한다.

낙농업은 이같은 위기이다. 이런 가운데 원유값을 내려야 한다는 정부 관계자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며, 그 강도는 더욱 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낙농업이 이 지경인데도 낙농가들은 위기타개에 소극적이라는 느낌을 외부에 주고 있다. 물론 2만 두가 넘는 젖소를 도태하는 등 낙농가들이 구조조정에 나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낙농가의 이같은 노력은 현재의 낙농위기를 타개하는데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낙농업은 아직도 위기에 빠져 있으며, 미래 역시 불투명하다.

그런데도 낙농가들은 현재의 위기타개에 소극적이다. 이러다 보면 위기가 해소되지 않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는 듯 하다. 낙농가들이 정부를 상대로 약속한 낙농자조금은 9월 중순 현재 담보상태이다.

낙농자조금을 조성해 낙농위기를 타개하겠다고 목청을 들군게 엇그체 인데, 막상 돈을 내려는 시점에 와서는 머뭇거리고 있다. 납이 안됐는데 왜 내가 먼저 내느냐는 식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

면 '서울우유 측에서 자조금을 내지 않는데 왜 우리가 먼저 자조금을 내야 하느냐'면서 발을 빼고 있다.

집유조합들은 집유조합대로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낙농진흥법 개정에 앞장섰던 집유조합들마저 막상 낙농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내가 집유조합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낙농진흥회에 가입하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다.

집유조합들이 이같이 반발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내년 1월 개정된 낙농진흥법의 시행과 함께 집유조합으로 선정되지 않은 조합은 사실상 살아갈 길이 막막해 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같이 우리 낙농업은 위기에 처했지만 위기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하다. 특히 나만 있고 우리는 없는 게 현재의 낙농업이다. 목청껏 힘주어 개혁을 외치지만 '내가 개혁에서 제외될 때만 그 개혁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자명하다. 모든 낙농가와 유업체가 하나도 제외되지 않은 가운데 다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길이다.

모두가 같이 고통을 분담하면 고통은 적지만 그 결과 얻을 수 있는 환희는 크다. 낙농가와 유업체 및 유통업체 종사자는 현재의 낙농위기를 타개하는데 같이 동참하는 길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 ⊕